

# 전남 완도군 해녀의 언어 연구\*

김경표(전남대)

## 〈목 차〉

- |                      |                       |
|----------------------|-----------------------|
| 1. 서론                | 4. 완도군 해녀 언어의 음운론적 연구 |
| 2. 완도군 해녀 언어의 어휘 연구  | 5. 결론                 |
| 3. 완도군 해녀 언어의 문법적 연구 |                       |

## 1. 서론

전남 완도군은 265개의 섬들이 모여서 형성된 도서군인데 완도군 섬에는 자생해녀와 정착해녀가 함께 활동하고 있다.<sup>1)</sup> 그런데 현재 완도군에는 자생해녀보다 정착해녀의 수가 더 많다. 완도 정착해녀는 완도군에 물질하러 와서 결혼한 후 정착한 해녀로, 완도군에서 40년 이상 살면서 물질을 하고 있다. 완도군 해녀들은 연세도 많고 현재 활동하는 수도 적으며 여러 섬에서 흩어져

\* 이 논문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FR-2021S1A5B5A16077665). 또한 제20회 한국방언학회 전국학술대회(2023년 6월 30일)에서 발표했던 글에 음운론적 연구를 추가하여 수정, 보완한 것이다.

1) 해녀에 대한 이런 분류는 김경표(2023)에서 가져온 것인데 제주도에서 활동하는 해녀를 '제주해녀', 제주도를 떠나 완도군에 정착한 해녀를 '완도 정착해녀', 완도군에서 자생적으로 생겨난 해녀를 '완도 자생해녀'라고 하였다.

활동하고 있는데 이들이 완도군 해녀의 마지막 세대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전남 완도군 보길면, 소안면, 신지면, 약산면, 생일면, 금일읍에 있는 해녀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언어를 어휘적, 문법적, 음운론적으로 분석하여 완도군 해녀 언어의 특징을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sup>2)</sup>

전남 완도군 해녀의 선행연구는 민속학적 연구와 언어학적 연구로 나눌 수 있다. 민속학적 연구로는 고광민(1992)의 평일도 해녀의 어로조직과 기술 연구, 곽유석(1991)의 청산도 해녀의 도구와 해초 채취 연구, 이경아(1997)의 신지도 패류 채취와 기술 연구, 양원홍(1998)의 완도에 정착한 제주해녀의 생애사 연구, 송기태(2015)의 신안과 완도의 무래꾼(해녀)의 정체성과 어로활동에 대한 연구, 박종오(2015)의 서남해 지역 해녀의 어로 기술 습득 방법과 어로 환경 적응 양상 연구, 전남여성플라자(2013)의 여수·신안·완도·고흥 지역 해녀의 실태연구, 국립무형유산원(2015)의 서남해 해녀, 통소음악, 한지장 연구가 있다. 언어학적 연구로는 김경표(2022)의 완도군 서부지역 자생해녀의 언어 연구, 김경표(2023)의 완도 정착해녀의 어휘 연구가 있다.

선행연구를 보면 민속학적 관점에서의 연구가 주를 이루고 최근 들어 언어학적 연구도 있었으나 완도군 해녀 전체를 대상으로 한 언어 연구는 없었다. 본 연구는 완도군 해녀의 언어를 구술조사하고 전사하여 그들의 언어를 어휘적, 문법적, 음운론적 특징을 분석하여 완도군 해녀의 언어 특징을 밝히려고 한다.

완도군은 한반도 최남단에 있으며 우리나라 6대 섬 중의 하나이다. 완도군은 3읍 9면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보길도, 소안도, 신지도, 약산도, 생일도, 평일도, 청산도에서 해녀가 활동하고 있다. 조사 지점은 아래와 같다.

2) 김경표(2022)에서는 완도군의 보길면, 소안면과 제주도의 추자면 자생해녀를 대상으로 연구를 하였고 김경표(2023)에서는 완도군 보길면, 신지면, 약산면, 금일읍 정착해녀를 대상으로 어휘 연구만을 진행하였다면 본 연구에서는 청산면을 제외한 완도군 전역을 대상으로 하였고 자생해녀와 정착해녀의 언어를 함께 다루며 완도군 해녀 언어를 전체적으로 조망하려고 하였다.



<완도군 지도>3)

완도군에 있는 해녀를 파악하고 해녀의 생애와 해녀 활동을 조사하기 위해 보길면은 2021년 8월 3일에 현장 조사를 하였고 소안면은 2021년 8월 19일에 현장 조사를 하였다. 신지면은 2022년 1월 7일, 18일에 현장 조사를 하였고 약산면은 2022년 8월 2일에 현장 조사를 하였다. 생일면은 2022년 8월 25일에 현장 조사를 하였고 금일읍은 2022년 12월 29일에 현장 조사를 하였다. 구체적인 인적 사항은 다음과 같다.4)

<표 1> 제보자 인적 사항

성함	성별	나이	조사지역	비고
한○○	여	84	보길면 중리	정착해녀(구좌읍 김녕리 출신)
신○○	여	78	소안면 미라리	자생해녀
이○○	여	74	신지면 동고리	정착해녀(한림읍 금능리 출신)

3) 카카오맵 지도를 편집하였다.

4) 2014년 시·군 해양수산과에서 제공한 전남지역 해녀 현황을 보면 완도군의 경우에 91명이 있는데 완도읍 10명, 금일읍 17명, 신지면 12명, 약산면 1명, 청산면 37명, 소안면 6명, 생일면 8명이 활동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현재 금일읍은 5명 내외, 신지면 5명 내외, 소안면 6명, 생일면 1명으로 해녀 수가 급격하게 줄고 있다.

홍○○	여	67	약산면 해동리	정착해녀(한림읍 협재리 출신)
김○○	여	69	생일면 서성리	자생해녀
오○○	여	63	금일읍 동백리	정착해녀(구좌읍 평대리 출신)

제보자는 해녀의 문화를 잘 알고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는 분을 선정하고 1:1 면담을 실시하였다. 이때 미리 준비한 질문을 하면서 심층 면담을 하였다. 생애와 관련하여 출생, 부모님의 고향, 결혼식, 출산, 제사, 장사에 대해 질문하였고 해녀 활동과 관련하여 물질을 배운 시기, 물질 방법, 물질 교육 유무, 채취 해산물, 채집용 도구, 해녀 공동체에 대해 질문하였다. 면담을 통해 채록한 내용을 어휘적, 문법적, 음운론적 분석을 통해 완도군 해녀의 언어 특징을 밝힌다. 어휘적 분석은 제주해녀 어휘와 비교하기 위해 양희주(2015)를 참고하고 문법적 분석은 전남 방언과 비교하기 위해 이기갑(2003)을 참고하였다. 음운론적 분석은 김경표(2013)을 참고하였다. 어휘적 분석은 해녀 명칭, 작업류, 작업 도구를 중심으로, 문법적 분석은 조사, 연결어미를 중심으로, 음운론적 분석은 활음화를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 2. 완도군 해녀 언어의 어휘 연구

완도군 해녀는 완도 방언을 사용하면서 제주해녀의 어휘도 사용하는데 완도군 해녀 어휘를 해녀 명칭, 작업류, 작업 도구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sup>5)</sup>

### 2.1. 해녀 명칭

해녀는 충청어로 부르는 명칭과 능력과 기량에 따라 부르는 명칭이 다른데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5) 완도군 정착해녀의 어휘 내용은 김경표(2023)에서 가져왔다.

〈표 2〉 해녀 명칭 비교

		제주해녀	완도해녀
총칭어		해녀, 줌녀, 줌네, 잠수, 줌수	해녀/자기/누구 엄매(보길면), 해녀/비발(소안면), 잠수/해녀(신지면), 해녀/보재기(약산면), 잠수(생일면), 잠수/해녀(금일읍)
기 량	상 군	고래줍녀, 상줍네(상줍수), 왕줍네(왕줍수), 줍네(큰줍수)	상군(보길면), 영자(소안면) 상잠수(신지면), 상점녀(약산면), <sup>6)</sup> 상군(생일면), 상군(금일읍)
	중 군	중잠수, 중줍네, 중줍수, 중해녀	중군(보길면), (소안면) 보통(신지면), 중점녀(약산면), (생일면), 중군(금일읍)
	하 군	꺾줍네(꺾줍수, 덕줍수), 하줍녀(하줍네, 하줍수)	똥군(보길면), (소안면) 어린 잠수(신지면), 소점녀(약산면), (생일면), 하군(금일읍)

해녀 자체를 칭하는 총칭어를 살펴보면, 완도군 해녀는 ‘해녀, 잠수, 점녀’라는 어휘를 사용하는데 제주해녀와 큰 차이가 없다. 그런데 완도군에서는 예전에 ‘무례꾼’이라는 말을 사용하였지만 현재는 사용하지 않았다.<sup>7)</sup> 보길면 정착해녀는 ‘해녀’라는 말도 사용하지만 편하게 ‘자기’나 ‘누구 엄매’라는 말도 사용하였다. 소안면 자생해녀의 ‘비발’이나 약산면 정착해녀의 ‘보재기’는 해녀를 부정적으로 인식했음을 알 수 있다.<sup>8)</sup> ‘비발’은 ‘비바리’의 준말로 제주도에서 바다에서 해산물을 채취하는 일을 하는 처녀를 의미하는데 소안면 자생해녀는 예전에 ‘해녀’를 ‘제주 비발’이라면서 좋게 보지 않았다고 한다. ‘보재기’는 『제주어사전』에서 ‘바다에서 해물, 주로 고기잡는 일을 업으로 하는 사람’ 즉 어부를 가리키는데 약산면 해녀는 ‘해녀’를 가리키고 있어서 지칭하는 대상이 다르다는 것을 알

6) ‘줍녀’에서 ‘·’가 첫째 음절에서 ‘아’로 변하여 ‘잠녀’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는데 약산면 정착해녀는 ‘·’가 ‘어’로 변한 ‘점녀’가 나타났다.

7) 신안군 해녀도 ‘무례꾼’이라는 말을 사용하였다.

8) 약산면 정착해녀는 해녀 직업을 ‘천덕스럽다’라고 하였다.

수 있다. 김지숙(2020: 203)에 의하면 동해안 지역에서는 ‘해녀’ 또는 ‘제주 해녀’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하는데 해녀 직업을 하대해서 지칭하는 말로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보재기’는 제주도에서는 어부를, 동해안 지역에서는 자생해녀나 제주해녀를, 약산면에서는 자생해녀를 가리키고 있어서 지역마다 지칭하는 대상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내륙에서는 부정적인 의미로도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주해녀는 능력과 기량에 따라 명칭이 상군, 중군, 하군으로 세분화되어 있고 위계 또한 서열화되어 있다. 완도군 해녀는 제주해녀의 영향을 받아 해녀 명칭이 서열화되어 있지만 제주해녀처럼 위계가 엄격하지 않았다.<sup>9)</sup> 그런데 소안면 자생해녀는 물질을 잘하는 상군을 특이하게 ‘영자’라고 하였으며 소안면 자생해녀와 생일면 자생해녀는 상군만 있고 중군과 하군은 따로 없다고 하였다. 이는 활동하는 해녀가 많지 않고 물질 수준도 평준화되어 명칭 서열화가 약화된 것 같다.

## 2.2. 작업류

해녀의 작업은 시간, 거리, 공간, 행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표 3〉 해녀 물질 작업 명칭 비교

	제주해녀	완도해녀
시간	안물, 궂바르, 밤바르	아침무래(보길면), (소안면) 아침무래/물질(신지면), 아침물질(약산면), (생일면), 물때 간다(금일읍)

9) 토론 과정에서 완도에서 해녀 명칭이 서열화되었지만 위계가 엄격하지 않은 이유로 물질 장소에 가는 방법의 차이와 개인 능력을 들었다. 제주도 해녀는 걸어서 해변에 간 후 앞바다에서 물질하는데 개인의 능력에 따라 먼바다까지 가서 작업하므로 채취물의 차이가 생겨 자연스럽게 해녀 명칭이 서열화되고 위계도 엄격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완도군 해녀는 앞바다에서 물질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배를 타고 섬 주변으로 이동해서 작업하므로 위계가 약화되었을 것이라고 하였는데 일리가 있는 것 같다.

거리	긱물질, 앞바르/난바르	가차운 바다(보길면), (소안면) (신지면), 앞바다/면바다(약산면), (생일면), (금일읍)
공간	나리, 불턱(봉턱), 탈의장	(보길면), 짝지빳, 불턱(소안면) 다시마 건조장(신지면), 불 쪼이는 곳(약산면), 건조장(생일면), 화닥, 기관실(금일읍)
행위	개뿔기, 물질, 도둑물질, 숨비소리, 헛숨	(보길면), 휘파람(소안면) 흠벳소리(신지면), 숨비소리(약산면), 후계소리(생일면), 숨비소리(금일읍)

완도군 해녀는 바다에 들어가서 해산물을 채취하는 것을 ‘물질, 무레질’이라고 하였다. ‘물질’은 ‘물+질’이고 ‘무레질’은 ‘물+에+질’로 분석할 수 있는데 제주 해녀의 어휘와 차이가 없다. 완도군 해녀는 주로 아침에 작업하러 가며 이를 ‘아침무레, 아침물질’이라고 하였다.<sup>10)</sup> 금일읍 정착해녀는 이런 어휘를 사용하지 않고 ‘물때 간다.’라고 표현하였다.

작업하는 거리와 관련하여 가까운 바다나 앞바다에서 물질하거나 면바다에서 물질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제주해녀처럼 세분화되지 않았으며 주로 바다 이름을 많이 부른다고 한다.

공간과 관련하여 제주해녀는 미역을 말리는 곳을 ‘나리’라고 하였는데 완도군 해녀는 ‘짝지빳, 건조장’이라고 하였다. ‘짝지빳’은 자갈밭의 전남 방언으로, 이곳에서 미역을 말렸다고 한다. ‘건조장’은 밭에 그물을 덮어 미역이나 다시미를 말리는 곳을 말하는데 지금은 대부분 다시마를 말린다고 하였다. 물질하고 추울 때 불을 쬐는 곳을 제주도는 ‘불턱’, 전남은 ‘불터’라고 한다. 예전에는 ‘불턱, 불 쪼이는 곳, 화닥’을 사용하였으나 지금은 공간 자체가 사라지고 없었다. 그리고 지금은 집에서 고무옷을 입고 가기 때문에 탈의실이 없으며 예전에는 ‘기관실’에서 옷을 갈아입었다고 한다. 공간과 관련하여 완도군 해녀는 작업

10) 신안군 해녀도 아침에 하는 작업을 ‘아침무레, 아침물질’이라고 하였고 오후에 하는 작업을 ‘오후무레, 오후물질’이라고 하였다.

환경이 바뀌어서 제주해녀의 어휘를 사용하지 않았다.

행위와 관련하여 해녀가 물질하다가 물 위로 올라와서 숨을 뺀 것을 전남은 ‘휘게소리’, 제주도는 ‘숨비소리’라고 한다. 소안면 자생해녀와 생일면 자생해녀는 ‘휘파람’이나 ‘후게소리’라고 하였고 신지면, 약산면, 금일읍 해녀는 완도 정착해녀로 ‘흙벧소리,<sup>11)</sup> 손비소리, 순비소리’라고 하여 자생해녀와 정착해녀 사이에 차이가 있었다. ‘휘게소리’는 ‘휘게+소리’로 분석할 수 있는데 ‘휘’는 ‘숨을 한꺼번에 세게 내쉬는 소리’로, 전남 방언에 휘파람을 뜻하는 ‘휘가락’이 있으며 소안면 자생해녀는 ‘휘파람’이라고 하였다. ‘-게’는 그 어원을 알 수 없으나 ‘휘게’를 ‘물질하다가 물 위로 올라와서 숨을 뺀 때’로 보면 ‘그때 또는 그 장소에서 가까운 범위’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게’로 볼 수 있다. ‘숨비소리’는 ‘숨비+소리’로 분석할 수 있는데 제주도 방언에 숨을 참고 물속으로 들어간다는 ‘숨비다’라는 동사가 있어 이와 관련이 있는 것 같다.

완도군 해녀는 아침에만 물질하고 거리와 관련하여 바다 이름을 주로 불렀다. 공간과 관련된 어휘는 작업 환경이 바뀌어서 사라지는 어휘가 많았고 제주해녀의 어휘와 차이가 있었다. 행위와 관련하여 자생해녀와 정착해녀 사이에 차이가 있었다.

### 2.3. 작업 도구

해녀들이 물질할 때 사용하는 도구는 채집용 도구, 채취용 도구, 보조 도구로 분류할 수 있다.<sup>12)</sup>

11) ‘흙벧’은 ‘숨비소리’의 ‘숨비’와 관련이 있을 것 같다. 전남 방언에서 ‘힘’을 ‘심’이라고 하는 ‘ㅎ’ 구개음화가 일어나는데 ‘흙벧’의 ‘ㅎ’은 전남 방언의 영향을 받아 원래는 ‘숨비’의 ‘ㅅ’인데 ‘ㅎ’ 구개음화에 대한 과도교정으로 ‘흙벧’이라고 한 것 같다.

12) 완도군 해녀가 사용하는 도구는 제주해녀가 사용하는 도구와 큰 차이가 없었다.



〈표 4〉 작업 도구 비교

	제주해녀	완도해녀
채집용	마다리, 망사리, 바꾸니, 조락	망사리, 조락(보길면), 망사리, 조락(소안면) 망사리/망아리, 조락(신지면), 두름박망(약산면) 망아리(생일면), 망사리, 조락(금일읍)
채취용	갈퀴, 빗창, 소살, 까꾸리/호맹이, 호미	갈고리, 피창(보길면), 깔꾸, 피창(소안면) 까꾸리/호맹이, 비창, 낫(신지면) 갈고리/호맹이, 비창, 작살(약산면) 갈꾸, 비창(생일면), 갈꾸, 비창, 낫(금일읍)
보조	닷들, 닷줄, 방맹이	닷줄(보길면), 닷배, 저울 봉알(소안면) 닷들, 닷줄(신지면), 닷들(약산면), 몽뚝, 닷줄(생일면), 닷들, 닷줄(금일읍)
	박테와, 두름박, 비국테와, 나이롱테와/스폰지테와	테와 두름박(보길면), 두름박(소안면) 두름박/두렁박(신지면), 두름박/두럼박(약산면) 뚝박/두름박(생일면), 두렁박/두르박(금일읍)

해녀가 바다에서 채취한 해산물을 담은 그물을 ‘망사리’라고 한다. 『제주어 사전』에 ‘망사리, 망시리, 망아리’가 나타나는데 완도군 해녀는 제주해녀의 어휘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다.<sup>13)</sup> 약산면 정착해녀는 ‘두름박망’을 사용하는데 이는 전남 방언 ‘두름박’과 한자어 ‘그물 망(網)’이 결합한 것이다. 채집용 도구로 ‘조락’도 있다. ‘줄 + -악’ 구성으로 ‘줄다’는 ‘잘다’의 제주 방언으로 크기가 작다는 의미이고 ‘-악’은 접미사이다. 이는 허리에 차거나 어깨에 멘다. 보길면, 소안면, 신지면, 금일읍 해녀는 물질할 때 조락에 주로 해삼을 넣는다고 한다.<sup>14)</sup>

완도군 해녀는 채취용 도구 중 문어나 성게를 잡는 도구를 ‘갈고리, 깔꾸, 까꾸리, 갈꾸’라고 하는데 제주해녀와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런데 ‘호맹이’의 경우에 전남 방언에서 끝이 뾰족하고 삼각형인 농기구 ‘호미’를 가리키는 반면

13) 신안군 해녀는 ‘홍서리’라고 불렀다.

14) 완도군 해녀 중 공기통을 메고 물질하는 해녀는 신지면, 약산면, 금일읍 정착해녀와 생일도 자생해녀가 있다.

제주도에서는 끝이 ‘ㄱ’자형 날로 되어 있는 갈고리로 지칭 대상에 차이가 있다. 제주도에서 ‘호미’는 낮에 해당되는 도구로 미역이나 툇, 모자반을 벨 때 사용한다고 한다.<sup>15)</sup> 완도군 해녀는 전복을 딸 때 ‘비창’이나 ‘피창’을 사용하는데 제주해녀의 ‘빗창’과 큰 차이가 없다. ‘빗창’은 ‘빗+창’의 결합인데 ‘빗’은 ‘전복’의 제주 방언으로 ‘전복을 따는 창’으로 볼 수 있다. 신지면과 금일읍 정착해녀는 미역을 벨 때 ‘낫’을 사용하였다고 한다.

보조도구로 ‘닷돌, 닷줄’이 있는데 ‘닷돌’은 닷처럼 사용하는 돌을 말하며 ‘닷줄’은 망사리와 닷돌을 연결하는 줄을 말한다. 보조도구는 제주해녀와 큰 차이가 없는데 소안면 자생해녀는 닷줄을 ‘땃배’라고 하였다. 생일면 자생해녀는 닷돌을 ‘몽뚝’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몽돌’의 전남 방언이다.

해녀들이 바다에서 작업하러 갈 때나 물질 중간에 올라와 잠깐 숨을 고르며 쉬는 도구로 ‘테왁’이 있다. ‘테왁’은 ‘테+왁’ 구성으로, ‘테’는 ‘떼’의 제주 방언으로 ‘나무나 대나무 따위의 일정한 토막을 엮어 물에 띄워서 타고 다니는 것’이다. ‘왁’은 ‘박’과 관련이 있는데 ‘테왁’은 ‘테박>테박>테왁’의 변화과정을 거쳐 생긴 것으로 볼 수 있다. 제주해녀는 ‘박, 버국, 스펀지’처럼 테왁을 만드는 재료에 따라 명칭이 다양한데 완도군 해녀는 재료와 상관없이 ‘두름박, 두렁박, 두르박, 둥박’이라고 하였다.

### 3. 완도군 해녀 언어의 문법적 연구

완도군 해녀 언어를 문법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조사, 연결어미로 나누어 살펴보겠다.<sup>16)</sup>

15) 양희주(2015: 47)에서는 밭에서 쓰는 호미를 ‘비호미, 돌호미’라고 부르고 바닷물에서 사용하는 호미를 ‘정계호미, 중계호미’라고 부른다고 하였다.

16) 전사 자료 중 조사나 연결어미의 경우에 표준어와 차이가 없거나 논의를 진행하기에 자료가 부족한 경우에는 본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 3.1. 조사

#### 3.1.1. 처격 조사 ‘에’

처격 조사 ‘에’는 앞말이 처소의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로, 전남 방언에서는 ‘에가’나 ‘가’로 나타난다.<sup>17)</sup>

- (1) ㄱ. 어디에가 있냐? / 광주가 있다.[전남]
- ㄴ. 즈깁디 아지민(=곁에 앉으면)[제주]<sup>18)</sup>
- ㄷ. (청각도) 밑에가 있고 헨디 / 밭에 띠를 띠다가[보길면 정착]
- ㄹ. 강상돔이 많이 있거든, 물밑에가 이렇게 / 도련님은 서울가 사시고 / 동네에 살았는디[소안면 자생]
- ㅁ. 멘 소재지에 사진사가 있었어요.[신지면 정착]
- ㅂ. (장비는) 밑에가 다 있제. / 요강에 쌀 담아 갔어.[약산면 정착]
- ㅅ. 물량이 없어요, 바다 속에가. / 애기들은 서울가 지금 있고[생일면 자생]
- ㅇ. (사진관이) 월송리에가 있었는데 / 딸 하나 부산가 있고 / 그 바다에[금일읍 정착]

처격 조사 ‘에’는 완도군 해녀의 경우 신지면 정착해녀를 제외하고 모두 ‘에가’가 나타났다. 이기갑(2003: 70)에 의하면 ‘에가’의 ‘가’는 동사 ‘가-’에서 문법화된 것으로, ‘가-’의 동작성이 사라지고 앞선 처격 조사 ‘에’와 어울려 ‘에가’라는 조사의 결합체를 형성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가’의 문법화가 완결되면서 주어가 [+유정]이어야 한다는 제약도 사라졌다고 한다. (1)을 보면 주어가 ‘청각, 강상돔, 장비, 물량, 사진관’처럼 대부분 [-유정] 명사임을 알 수 있다. 신지면 정착해녀는 방언형인 ‘에가’나 ‘가’도 나타나지 않았고 표준어 ‘에’만 나타났는데 그 이유를 특정하기는 힘들다. 그리고 방언형인 ‘가’는 ‘에가’에서

17) 정착해녀는 완도군에서 40년 이상 거주하였고 조사 과정에서 전남 방언을 사용하여 이 장에서는 주로 전남 방언과 비교해 보려고 한다. 그런데 현재 제주도 해녀와 교류하는 정착해녀도 있어 전사 자료에서 제주 방언의 특징적인 요소가 있는지 확인한다.  
 18) 제주 방언 자료는 『국어방언문법』과 『개정증보 제주어사전』에서 가져온 것이다.

‘에’가 생략된 것으로, 주어는 [+유정] 명사가 온다. (1ㄹ, ㅅ, ㅇ)을 보면 ‘도련님, 애기들, 딸’처럼 [+유정] 명사가 왔다. 방언형인 ‘가’는 소안면, 생일면, 금일읍에서 나타나는데 소안면, 생일면 해녀는 자생해녀이고 금일읍 해녀는 정착해녀로 이들에서 공통점을 찾기 힘들다. 완도 정착해녀의 채록 자료에서 처격의 ‘에’에 대응하는 제주 방언 ‘디’는 나타나지 않았다. 처격 조사 ‘에’는 완도군 해녀에서 모두 사용되고 있으며 방언형 ‘에가’도 대부분 사용되고 있으나 표준어 ‘에’가 더 많이 사용되고 있었다.

완도군 해녀는 방언형인 ‘에가’나 ‘가’나 나타나지만 표준어 ‘에’를 더 많이 사용하였다.

### 3.1.2. 처격 조사 ‘에서’

처격 조사는 장소나 위치, 또는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로 전남 방언에서는 ‘에서’나 ‘이서’로 나타난다.

(2) ㄱ. 절에서 만났던 사람이 / 집에서 했제.[전남]

ㄴ. 물 우의서 털어정 죽었다. / 질레서(=길에서) 만나도[제주]

ㄷ. 어촌계에서 안 하고 / 제주서 이리 모집 왔는데 /

집에서 몇 번 옆으러져 갖고[보길면 정착]

ㄹ. 동네에서 와서 찍었어요. / 집이서는 인자 잔치하고[소안면 자생]

ㅁ. 다 집에서 치웠잖아요. / 제주도서 갖다 먹고[신지면 정착]

ㅂ. 신제주에서 부모님들은 다 살아요. / 제주도서 결혼하고[약산면 정착]

ㅅ. 서성리 바다에서 한다든가 / 떡방에 집서 만들었어요.[생일면 자생]

ㅇ. 미역을 너르박에서 붙여서 / 제주도선 엄청 반대했어요.[금일읍 정착]

처격 조사 ‘에서’는 완도군 해녀 전체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방언형 ‘이서’는 보길면 정착해녀와 소안면 자생해녀에서만 나타났다. 처격 조사 ‘이서’는 방언형으로 장소 명사 ‘집’ 뒤에서만 나타나는데<sup>19)</sup> 완도군 다른 지역 해녀에게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보길면 정착해녀와 소안면 자생해녀에서만 나타난 이유로 해녀의 나이와 사는 지역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보길면 정착해녀는 조사 당시 84세이고 소안면 자생해녀는 78세이며 다른 지역 해녀는 60대 후반이 많았는데 완도군에 오래 거주하여 자연스럽게 완도 방언을 습득한 것 같다.<sup>20)</sup> 생일면 자생해녀는 ‘집서’가 나타나지만 ‘집이서’는 나타나지 않아서 자생해녀와 정착해녀의 차이로 볼 수 없다. 그리고 처격 조사 ‘서’가 나타나는데 이는 표준어 구어에서 ‘에서’의 ‘에’가 생략된 ‘서’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일반적으로 전남 방언에서 ‘이서’는 장소 명사 ‘집’ 뒤에서 나타나는데 신지면, 약산면, 금일읍 정착해녀의 경우 ‘집에서’만 나타나기 때문이다. 보길면과 소안면은 완도읍을 기준으로 서쪽에 있고 신지면, 약산면, 생일면, 금일읍은 동쪽에 있는데 완도의 동쪽은 연륙교가 개통되어 육지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아서 이런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완도 정착해녀의 채록 자료에서 제주 방언 ‘의서, 디서, 레서’<sup>21)</sup> 나타나지 않았다.

처격 조사 ‘에서’는 보길면과 소안면 해녀의 경우 방언형인 ‘이서’가 나타났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표준어를 더 많이 사용하였다. 이를 통해 완도군 해녀는 처격 조사 ‘에서’의 경우 표준어를 더 많이 사용할 것 같다.

19) 처격 조사 ‘이서’는 ‘집+의서’ 결합 중 ‘의서’에서 온 것이다. 이때 ‘집’을 보통 특이처격여라고 한다. 박형우(2010: 171)에서는 15세기 자료 중 일반처격을 취하는 특이처격어로 ‘결, 녁, 밀, 집, 돛’을 제시하였는데 성조가 평성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현재 전남 방언에서는 ‘집’ 뒤에서만 ‘이서’가 나타난다.

20) 김경표(2020)을 보면 신안군 해녀의 경우에 비리 자생해녀 자료에서는 ‘이서’가 나타났고 가거도와 장도 자생해녀의 자료에서는 ‘에서’가 나타났다. 그런데 가거도 자생해녀가 78세로 나이가 가장 많아서 해녀의 나이가 처격 조사 방언형 ‘이서’ 출현의 절대적인 요인이 아님을 알 수 있다.

21) 이기갑(2003: 75)에서는 ‘르’로 끝난 명사 다음에서는 ‘디서’ 대신에 ‘레서’가 쓰인다고 하였다.

## 3.1.3. 도구격 조사 '으로'

도구격 조사는 문장 안에서 체언이 그다음에 오는 서술어의 내용을 실현하는 도구가 됨을 표시하는 부사격 조사로 전남 방언에서는 '으로'나 '이로'로 실현된다.

- (3) ㄱ. 손으로 뜯지요. / 돈으로 줬어요.[전남]  
 ㄴ. 손톱으로 곡주멍덜(=손톱으로 할퀴면서)[제주]<sup>22)</sup>  
 ㄷ. 꿈으로 막는 사람이 있는데 / 김빨을 손으로 해다가[보길면 정착]  
 ㄹ. 갈 때마다 돈으로 했어요.[소안면 자생]  
 ㅁ. 미역으로 하고 / 옛날에는 손이로들 가서 잘 잡고[신지면 정착]  
 ㅂ. 손으로 다 심고 그랬지.[약산면 정착]  
 ㅅ. 손으로 악수를 하길래[생일면 자생]  
 ㅇ. 옛날에는 다 손으로, 낫으로[평일읍 정착]

도구격 조사 '으로'는 완도군 해녀 전체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방언형 '이로'는 보길면, 신지면 정착해녀에서만 나타났다. 약산면 정착해녀, 생일면 자생해녀, 평일읍 정착해녀는 도구격 조사 앞의 명사가 '손'으로 동일한데 '이로'가 아닌 '으로'가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를 설명하는 것은 쉽지 않으나 나이와 관련이 있을 것 같다. 김경표(2021)에서 신안군 가거도 해녀의 경우에 다른 해녀와 달리 도구격 조사 '이로'를 사용하였는데 나이가 78세였고 육지와 많이 떨어져 있는 부분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았다. 완도 정착해녀의 채록 자료에서 제주 방언 '이로'는 나타나지 않았다.

도구격 조사 '으로'는 보길면과 신지면 정착해녀에게서 방언형인 '이로'가 나타났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표준어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어 완도군 해녀는 앞으로 표준어를 더 많이 사용할 것 같다.

22) 제주 방언에서 도구격 조사는 '으로'나 '이로'로 나타난다.

## 3.2. 연결어미

### 3.2.1. ‘-으니까’

‘-으니까’는 앞말이 뒷말의 원인이나 근거, 전제 따위가 됨을 나타내는 연결어미로 전남 방언에서는 보통 ‘-응께’로 실현되며 ‘-으니까(로), -응께(로)’로도 실현된다.<sup>23)</sup>

- (4) ㄱ. 진작부터 말허니까 안 듣고 / 내가 강께로 다들 모였든만.[전남]  
 나. 일본 간 때 건강허나네(=일본 갔을 때 건강하니까) /  
 그때 병원도 었어시난(=그때는 병원도 없었으니까)[제주]  
 ㄷ. 그렇게 그때 나 비렸어요./ 나가 혼자 사니까[보길면 정착]  
 ㄹ. 50년이 넘었응께 / 일을 하고 상께 / 가족이 뜨니까[소안면 자생]  
 ㅁ. 오십 한 살잉께 /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신지면 정착]  
 ㅂ. 과일도 하고 항께 / 같이 있으니까 그렇게 불러요.[약산면 정착]  
 ㅅ. 몇 개월 넘응께는 / 안 하고 항께는 / 몸이 야가니까[생일면 자생]  
 ㅇ. 못 했응께 / 바다에 왔다 갔다 항께 / 금방 와버리니까[금일읍 정착]

연결어미 ‘-으니까’는 완도군 해녀의 경우에 방언형인 ‘-으니까’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응께’는 모든 지역에서 실현되었다. 그리고 표준어 ‘-으니까’도 모든 지역에서 실현되었는데 ‘-응께’보다 더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이는 방송 매체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런 것 같다. 완도 정착해녀의 채록 자료에서 제주 방언 ‘-으나네, -으난’은 나타나지 않았다. 전남 방언에서는 ‘-으니까’보다는 ‘-응께’로 실현되는 경우가 많은데 현재 완도군 해녀는 ‘-으니까’를 더 많이 사용하였다.

채록 자료를 토대로 연결어미 ‘-으니까’를 보면 완도군 해녀는 방언형인 ‘-응께’와 표준어 ‘-으니까’를 함께 사용하고 있으나 ‘-으니까’의 쓰임이 확산되고

23) 이기갑(2003: 387)에 의하면 전북 지역에서는 ‘-으니까’나 ‘-응께’로 실현되며 전북과 접한 담양 지역어에서는 ‘-응께’와 ‘-응께’가 함께 쓰인다고 하였다. 김영규(2017: 341)에서는 전남 서부는 ‘-응께’, 전남 중부는 ‘-응께 ~ -으니까 ~ -으니까’, 전남 동부는 ‘-으니까’로 분포하고 있다고 정리하였다.

있었다.

### 3.2.2. ‘-으면’

‘-으면’은 불확실하거나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을 가정하거나 분명한 사실을 어떤 일에 대한 조건으로 말할 때 쓰는 연결어미로 전남 방언에서는 ‘-으면, -으문’으로 실현된다.

(5) ㄱ. 니가 가면 쓰것다.[전남]

ㄴ. 농서 돈 해나민(=농사 모두 했으면)[제주]

ㄷ. 가고 싶으문 가고 /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보길면 정착]

ㄹ. 나이 더 묵으문 노망해 갖고[소안면 자생]

ㅁ. 애기 낳았으문 옥에다가 / 텔레비 보면은 다 하는 거[신지면 정착]

ㅂ. 제주도 가문은 다 그 기념관에 / 결혼하면 어찌갔냐고[약산면 정착]

ㅅ. 사람들이 갔다 오문 / 이렇게 입으면 속 들어간다.[생일면 자생]

ㅇ. 떠 가문 삼십 분 간 데도 있고 / 목돈을 갖고 가면[금일읍 정착]

연결어미 ‘-으면’은 완도군 해녀 전체에서 방언형인 ‘-으문’으로 실현되었다. 그런데 전남 방언에서는 ‘-으면’으로 실현되는 것과 차이가 있다. 1991년의 자료인 《한국방언자료집 전라남도편》의 완도군 자료에서는 모두 ‘-으면’으로 실현되고 있는 것을 보면 90년대 이전에는 ‘-으면’으로 실현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김경표(2021)의 신안군 해녀의 경우에는 ‘-으문’으로 실현되고 있고 완도군 해녀도 ‘-으문’으로 실현되는 것을 보면 전남 방언에서 연결어미 ‘-으면’은 ‘-으면’-으문’-으문’의 변화가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sup>24)</sup> 그리고 표준어 ‘-으면’으로도 실현되는데 소안면 자생해녀는 ‘-으문’으로만 실현되고 ‘-으면’으로 실현되는 예는 없었다. 금일읍 정착해녀는 대부분 ‘-으면’으로 실현되었으며 다른 지역 해녀는 두 형태가 공존하고 있었다. 완도 정착해녀의 채록 자료에서

24) 모음체계에서 모음 ‘어’가 상승하여 ‘으’가 되고 양순음 ‘ㅁ’ 아래에서 ‘으’가 ‘우’로 원순모음화가 일어난 것이다.



제주 방언 ‘-으민’은 나타나지 않았다.

채록 자료를 토대로 연결어미 ‘-으면’을 보면 완도군 해녀는 방언형인 ‘-으문’과 표준어 ‘-으면’ 형태가 공존하고 있으나 ‘-으면’의 쓰임이 확산되고 있었다.

## 4. 완도군 해녀 언어의 음운론적 연구

완도군 해녀 언어를 음운론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w-활음화, y-활음화로 나누어 살펴보겠다.<sup>25)</sup>

### 4.1. w-활음화

‘w-활음화’는 어간말음절의 모음 ‘오, 우’가 어미초 ‘아’나 ‘어’와 결합할 때 활음 ‘w’가 되는 음운 현상이다. 먼저 어간말음절의 모음이 ‘오’인 경우를 살펴보자.

- (6) ㄱ. 모집을 해 갖고 와서 여기 와서 / 현장에 가 봐야제[보길면 정착]  
 나. 여기 와서 저 큰몰이라고 / 여름 해수욕장 바:갖고[소안면 자생]  
 다. 혼자 와서 슬프제.[신지면 정착]  
 르. 그분이 와서 해 췌어요.[약산면 정착]  
 미. 와서 밥 해 묵고 / 해녀 해 봐야 멧 십 년을 하겼어요?[생일면 자생]  
 바. 돈을 벌어 와서 땅도 사고 / 그거 몰때 바:서 해요.[금일읍 정착]  
 사. 와서, 바:서 / 와서, 바:서[완도]<sup>26)</sup>  
 오. 와, 완, 바, 반[제주]<sup>27)</sup>

25) 김경표(2013)에서는 모음의 완전순행동화, 활음화, 자음군단순화, 활음 첨가, ‘여’ 축약이 신안, 진도, 완도 지역어에서 차이가 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른 지역과의 비교 연구를 위해 먼저 음운 현상 중에서 ‘활음화’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다른 음운 현상은 차후에 연구를 진행하겠다.

26) 이는 김경표(2013)의 완도 자료, 『한국방언자료집 전라남도편』의 완도 자료이다.

27) 『한국방언자료집 제주도편』의 자료이다.

(6)에서 완도군 해녀는 모두 w-활음화가 일어났다. ‘오-(來)’ 어간은 전 지역에서 나타났고 w-활음화도 전부 일어났다. ‘보-(看)’ 어간은 보길면, 소안면, 생일면, 금일읍 자료에서만 나타났는데 보길면 정착해녀와 생일면 자생해녀는 w-활음화가 일어났지만 소안면 자생해녀와 금일읍 정착해녀는 활음화 이후에 활음 ‘w’가 탈락한 예가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특정하기 어렵다. (6入, 〇)은 완도와 제주 자료인데 활음화와 활음화 후 활음 ‘w’ 탈락이 공존하고 있다. 완도군 해녀는 단어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어간말음절의 모음이 ‘오’인 어간은 완도나 제주 방언처럼 활음화가 일어난 경우와 활음화 후에 활음 ‘w’가 탈락한 형태가 공존하고 있었다.

(7) ㄱ. 뗏 부락이 나나.[보길면 정착]

ㄴ. 나를 배워준 거예요. / 그다음 날까지 다 나나 먹고[약산면 정착]

ㄷ. 뗏 집을 나눠서 줘도[생일면 자생]

ㄹ. 이거 배와 다 땡기면서, 여자는 기술을 배워 놓으면[금일읍 정착]

ㄹ. 키워서, 키와서, 가워서, 가더서 / 싸왔다, 배워라, 가파라, 가다라[완도]

ㅂ. 배와서, 띠와, 치와, 가와, 마चा, 가파[제주]

(7)은 어간말음절의 모음이 ‘우’인 어간으로<sup>28)</sup> 보길면, 약산면, 생일면, 금일읍 자료에서만 활음화가 일어난 예가 나타났다. ‘나누-(分)’ 어간은 생일면 해녀는 ‘나눠서’처럼 활음화가 일어났지만 보길면과 약산면 정착 해녀는 ‘나나’처럼 활음화 이후에 활음 ‘w’가 탈락하였다. ‘배우-(學)’ 어간은 어간말음절의 초성이 없어서 활음화만 일어났다.<sup>29)</sup> (7ㄹ)은 완도 자료인데 활음화가 일어난

28) ‘나누다, 배우다, 싸우다’는 15세기에 ‘논호다, 빈호다, 싸호다’로 어간말음절의 모음이 모두 ‘오’이었다. ‘논호다’를 보면, ‘논호다>난호다>나누다’의 변화를 거쳐 ‘나누다’가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형태를 고려하여 위 단어들을 어간말음절의 모음이 ‘우’인 어간으로 분류하였다.

29) ‘배와’는 ‘배오(〈비오〉+어)’로 ‘빈호다’의 화석화된 활용형으로 볼 수 있고 ‘배워’는 ‘배우+어’로 볼 수 있는데 두 형태 모두 활음화가 일어났다.

형태가 일반적이고 활음화 후 활음 ‘w’가 탈락한 형태도 나타났다. (7b)은 제주 자료인데 모두 활음화가 일어났다. 권미소(2021: 116)에서는 제주 방언에서 ‘꽤왕, 다왕, ㄱ왕, 가왕’의 활용형이 나타나는데 이를 어간말음절의 모음이 ‘우’인 어간으로 보았으며 활음화가 적용되었다고 하였다.

어간말음절의 모음이 ‘우’인 어간의 경우에 완도군 해녀는 완도나 제주 방언처럼 활음화가 일어났는데 완도 방언과 더 유사한 모습을 보였다.

## 4.2. y-활음화

‘y-활음화’는 어간말음절의 모음 ‘이’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할 때 활음 ‘y’가 되는 음운 현상이다.

- (8) ㄱ. 거기서 살림 차려 살아불고 / 데려간 사람 데려가고[보길면 정착]  
 ㄴ. 꼬무장갑 짜야 되고 / 망사리에다 갖고 땡겨요. /  
 그거 다 갖고 땡졌지라.[소안면 자생]  
 ㄷ. 제주도 해녀들 데려다가 했는데 / 반찬하러 다녀.[신지면 정착]  
 ㄹ. 시루에 여고 찻제. / 방앗간에 다 빨겨요. /  
 바다에다가 채려 놓기도 하고[약산면 정착]  
 ㅁ. 그런 거 찻서 / 텐다가 계속 땡겨봉게 / 상 차려서[생일면 자생]  
 ㅂ. 배를 타고 땡겨 / 배에다 차렸어요. / 뭐 많이 다녀요.[금일읍 정착]  
 ㅅ. 찻서, 땡겨서, 비벼서, 비베서 / 찻서, 땡게서, 내레라, 비베서[완도]  
 ㅇ. 찻, 찻어, 찻여, 부선, 마섯저, 느려[제주]

(8)에서 완도군 해녀는 모두 y-활음화가 일어났다. (8ㄴ, ㄹ, ㅁ)에서 ‘짜야, 찻제, 찻서’는 1음절 어간에서 y-활음화가 일어난 것인데<sup>30)</sup> (8ㄴ)의 ‘짜야’는 ‘끼-(插)’ 어간에 ㄱ-구개음화가 일어난 ‘찌-’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하여 y-활음화가 일어났다. (8ㄹ, ㅁ)의 ‘찻제, 찻서’는 ‘찌-(蒸)’ 어간에 모음으로

30) 이는 두 형태소가 결합하는 과정에서 경구개음 뒤에서 활음 ‘y’가 탈락한 것이다. 그런데 ‘y’ 탈락은 반드시 활음화가 일어난 후에만 적용된다.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하여 y-활음화가 일어났다. 보길면, 신지면, 약산면, 생일면, 금일읍 해녀는 활음화 이후 ‘이+어→여’형이 나타났지만 소안면 해녀는 활음화 이후에 ‘이+어→여’형뿐만 아니라 ‘이+어→에’형도 나타났다. (8s)은 완도 자료인데 『한국방언자료집』의 1991년 자료는 활음화 이후 ‘이+어→에’형이 더 일반적이었고 김경표(2013)의 자료는 활음화 이후 ‘이+어→여’형 더 일반적이었다. 완도 방언의 y-활음화는 활음화 이후 ‘이+어→여’형으로 일반화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8o)은 제주 자료인데 활음화가 일어난 형태가 주를 이루지만 활음화가 일어나지 않은 형태도 나타난다.

완도군 해녀는 소안도 자생해녀를 제외하면 활음화 이후에 ‘이+어→여’형만 나타났는데 완도나 제주 방언의 y-활음화 경향성과 비슷한 모습을 보인다.

## 5. 결론

완도군 해녀의 언어적 특징을 밝히기 위해 해녀들을 면담한 후 채록한 해녀 언어를 어휘적, 문법적, 음운론적으로 분석하였다.

해녀 언어를 어휘적으로 분석하였는데 완도군 해녀는 제주해녀의 어휘를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완도군에서는 예전에 ‘무레꾼’이라는 말을 사용하였으나 지금은 사용하지 않았다. 그리고 해녀를 ‘해녀, 잠수, 점녀’라고 하였는데 제주해녀와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런데 ‘비발’이나 ‘보재기’를 통해 완도군 해녀가 해녀 직업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기량과 능력에 따른 해녀 명칭이 제주해녀의 영향으로 서열화되어 있지만 활동하는 해녀가 많지 않고 물질 수준도 비슷하여 제주해녀처럼 위계가 엄격하지 않았다. 완도군 해녀는 아침에만 물질을 하였고 거리와 관련하여 바다 이름을 주로 불렀다. 공간과 관련된 어휘는 작업 환경이 바뀌어서 사라지는 어휘가 많았으나 ‘짜지밭’과 같은 전남 방언도 사용하였다. 행위와 관련하여 자생해녀는 ‘휘파람, 후께소리’를 사용하였고 정착해녀는 ‘흙벧소리, 손비소리, 순비소리’ 사용하여 차이가

있었다. 채취한 해산물을 담는 그물을 ‘망사리, 망아리, 두름박망’이라고 하였는데 제주해녀와 차이가 없었다. 그리고 문어나 성계를 잡는 도구를 ‘갈고리, 깔꾸, 까꾸리, 갈꾸’라고 하였는데 제주해녀와 차이가 없으나 ‘호멩이’는 차이가 있었다. 보조도구로 ‘닷돌, 닷줄’이 있는데 제주해녀와 큰 차이가 없었는데 소안면 자생해녀는 닷줄을 ‘닷배’라고 하였고 생일면 정착해녀는 닷돌을 ‘몽뚝’이라고 하였다. 완도군 해녀는 테왁을 ‘두름박, 두렁박, 두르박, 둔박’으로 불렀는데 제주해녀처럼 다양하지 않았다.

해녀 언어를 문법적으로 분석하였는데 완도군 해녀는 전남 방언형과 표준어형을 같이 사용하고 있으나 표준어형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조사의 경우에, 처격 조사 ‘에’는 방언형인 ‘에가나’ ‘가나’ 나타났지만 ‘에’를 더 많이 사용하였다. 처격 조사 ‘에서’는 보길면 정착해녀와 소안면 자생해녀에게서 방언형인 ‘이서’가 나타났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에서’를 더 많이 사용하였다. 도구격 조사 ‘으로’는 보길면과 신지면 정착해녀에게서 방언형인 ‘이로’가 나타났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으로’를 더 많이 사용하였다. 연결어미의 경우에, 완도군 해녀는 방언형인 ‘-으께’보다는 ‘-으니까’를 더 많이 사용하였다. ‘-으면’은 방언형인 ‘-으문’과 표준어 ‘-으면’이 공존하고 있었으나 ‘-으면’의 쓰임이 확산되고 있었다.

해녀 언어를 음운론적으로 분석하였는데 활음화는 완도 방언이나 제주 방언과 비슷한 모습을 보였다. w-활음화는 어간말음질의 모음이 ‘오’인 경우에 완도나 제주 방언처럼 활음화가 일어난 경우와 활음화 후에 활음 ‘w’가 탈락한 형태가 공존하고 있었다. 어간말음질의 모음이 ‘우’인 경우는 완도 방언처럼 두 형태가 공존하고 있었지만 w-활음화가 일어난 형태가 더 일반적이었다. y-활음화는 소안도 자생해녀를 제외하면 활음화 이후에 ‘이+어→여’형만 나타났는데 완도나 제주 방언의 y-활음화 경향성과 비슷하였다.

완도군 해녀의 어휘 중 해녀 명칭, 작업류, 작업 도구 어휘는 제주해녀의 영향을 받아 제주 방언을 그대로 사용하는 어휘들이 많았으나 공간과 관련된 어휘는 전남 방언을 주로 사용하였다. 이는 해녀가 제주도에서 완도군에 물질하러 온 후에 정착하여 40년 이상 생활하였기에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완도군

해녀 언어의 조사나 연결어미는 전남 방언형과 표준어가 공존하고 있으나 표준어를 더 많이 사용하였다. 활음화는 완도 방언이나 제주 방언과 비슷한 모습을 보였는데 w-활음화는 두 형태가 공존하고 있었으며 y-활음화는 활음화 이후에 ‘이+어→여’형이 일반적이었다. 완도군 해녀의 이러한 언어 특징은 방송 매체, 해녀의 부정적 인식에 따른 지역민과의 거리 두기, 전통적 방식과 스쿠버 다이빙 방식의 물질 방법, 수입 증대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준 것 같다. 본 연구는 완도군 해녀의 언어 특징을 밝힌 것으로 조사지역을 서남해 지역으로 확장한다면 서남해 해녀 연구뿐만 아니라 한국 해녀 연구의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주제어 : 완도군 해녀, 제주해녀, 완도 자생해녀, 완도 정착해녀,  
완도 방언, 해녀 언어

### <참고문헌>

- 고광민(1992), 「平日島 '무래꾼'(海女)들의 組織과 技術」, 『島嶼文化』 10, 목포대  
 도서관문화연구원, 97-122면.
- 곽유석(1991), 「청산도의 민속문화-생업도구를 중심으로」, 『도서관화』 9, 목포대  
 도서관문화연구소, 125-248면.
- 국립무형유산원(2015), 『서남해 해녀, 통소음악, 한지장』, 국립무형유산원.
- 권미소(2021), 「제주 방언의 음운론적 연구: 남원읍 지역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  
 문(제주대).
- 김경표(2013), 「전남 도서 방언의 음운론적 대비 연구」, 박사학위논문(전남대).
- 김경표(2021), 「전남 신안군 해녀의 언어 연구」, 『한국언어문학』 116, 한국언어문학  
 회, 5-31면.
- 김경표(2022), 「완도군 서부지역 자생해녀의 언어 연구」, 『한국언어문학』 122, 한국  
 언어문학회, 93-119면.
- 김경표(2023), 「완도 정착해녀의 어휘 연구」, 『한국언어문학』 124, 한국언어문학회,  
 5-23면.
- 김영규(2017), 「연결어미 '-으니까'의 방언 분포와 분화」, 『관악어문연구』 42,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337-361면.
- 김지숙(2020), 「언어 접촉으로 유지 해녀의 언어에 나타난 제주 방언 연구」, 『방언학』  
 32, 한국방언학회, 191-220면.
- 문옥희·이아승(2013), 『전남지역 해녀실태조사』, 전남여성플라자.
- 박종오(2015), 「서남해 해녀의 어로방식 변화 고찰」, 『島嶼文化』 46, 목포대 도서관  
 화연구원, 119-146면.
- 박형우(2010), 「15세기 특이처격어에 대한 연구」, 『한민족어문학』 57, 한민족어문학  
 회, 163-188면.
- 송기태(2015), 「서남해 무래꾼 전통의 변화와 지속」, 『실천민속학연구』 25, 실천민  
 속학회, 207-245면.
- 양원홍(1998), 「완도에 정착한 제주해녀의 생애사」, 석사학위논문(제주대).
- 양희주(2015), 「제주해녀 어휘 연구」, 석사학위논문(제주대).
- 이기갑(2003), 『국어방언문법』, 태학사.

이경아(1997), 「채취기술의 변화에 따른 어촌사회의 적응전략: 신지도 貝類 채취조  
직과 기술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영남대).

제주특별자치도(2009), 『제주어 사전(개정 증보판)』, 제주특별자치도.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91), 『한국방언자료집 VI 전라남도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91), 『한국방언자료집 IX 제주도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main>

사이트: <https://opendict.korean.go.kr> 우리말샘



[Abstract]

## A Study on the Language of Haenyeo in Wando-gun, Jeollanam-do

Kim, Gyoung-pyo

This study analyzed the language of Haenyeo in Wando-gun lexically, grammatically, and phonologically. In the case of the vocabulary related to the name of the Haenyeo, their work style, and their work tool in Wando-gun, it was similar to the vocabulary used under the influence of the Jeju Haenyeo, but the Jeonnam dialect vocabulary was also used. Regarding the act, Wando's native Haenyeo used 'hwipalam, hukkesoli', and Wando's settlement Haenyeo used 'hombes-soli, sonbi-soli, sunbi-soli', so there was a difference between the two. The particles and connective ending in the language of Haenyeo in Wando-gun coexisted with both Jeonnam dialectal forms and standard language. However, The standard language was used more frequently. Glide was similar to Jeonnam dialect or Jeju dialect. The w-glide formation was coexisting in two forms, but the form in which w-glide formation occurred was more common. The y-glide formation was coexisting in two forms, but the 'i+eo→yeo' type is likely to be more common after glide formation.

These linguistic characteristics of Wando-gun Haenyeo seem to have been influenced by various factors, including broadcasting media, keeping a distance from local residents, collection methods such as traditional methods and scuba diving, and increased income.

**【Key words】** : Wando-gun Haenyeo, Jeju Haenyeo, Wando native Haenyeo, Wando settlement Haenyeo, Wando dialect, Haenyeo language

---

---

**김경표**

전남대학교 한국어문학연구소 학술연구원

(61461) 광주광역시 동구 증심천로 117, 102동 703호

전자우편: haepyoda@naver.com

---

---

이 논문은 2024년 2월 14일에 투고되었으며, 2024년 3월 8일에 심사 완료되어 3월 19일에 게재 확정되었음.